



보도자료

2021.12.06.(화)

더불어민주당 다이내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담당처 : 다이내마이트 청년 선대위원회(구. 청년플랫폼)

담당자 : 홍서운 청년대변인(010-4455-8255)/김기운 상황실장(010-5314-0062)

자전거 · 공공의료 · 한부모가정 자녀 · 젊은 정치인 청년 선대위,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청년 인선

- 분야별 인선에 27세 김연수 씨, 21세 심지현 씨, 29세 오영열 씨, 29세 조민경 씨
- 외부 영입보다는 해당 분야 경험이 누적된 당내 청년 발굴로 기회 분배
- 자전거 문화, 간호사, 한부모가정 자녀, 젊은 정치인 등 문제 해결형 인선 라인 구축

더불어민주당 다이내마이트 청년 선대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분야별 인사 및 대표단 8명을 1차 인선으로 발표하였다. 분야별 4명의 인사는 각각 자전거, 공공의료, 한부모가정 자녀, 젊은 정치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거나 당사자들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청년 선대위에 합류하며 MZ세대 내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한자리에 모였다.

김연수(27세)씨는 안산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이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노동자 처우 개선의 필요를 주장하는 청년이다. 그는 격차와 소외 없는 공공인프라가 구축되어 돈이 없거나 지방에 있어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청년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고 선대위 합류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발표된 심지현(21세)씨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대학생이다. 그는 한부모 가정 자녀로 성장하며 당연한 가족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라는 우리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지적했다. 또, 한부모 가정에게 필요한 사회적 보호와 제도의 필요성을 말하며, 향후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둔 청년들을 위한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오영열(29세)씨는 ‘약속의 자전거’ 대표로, 자전거 문화 및 정책개선을 위해 다년간 노력해 왔다. 그는 차도, 인도, 심지어 자전거도로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자전거 라이더의 고충을 이야기했으며, 목숨을 담보로 자전거를 이용해야하는 우리나라 자전거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대비 자전거 문화와 정책은 발전이 더디다” 며,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전거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에 합류하게 되었다.” 고 합류 소감을 밝혔다.

조민경(29세)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의원으로, 피선거권이 주어진 만25세의 나이로 기초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젊은 정치인이다. 그는 한 보통의 청년으로서, 일반적으로 직장에 출근하듯 구의회에 출근하며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발로 뛰는 ‘젊치인(젊은 정치인)’ 이다. 그는 “정치가 젊어지면 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고 말하며,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에서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과 연대하며 대전환 사회를 함께 맞이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는 이어 대표단 4명의 인선도 공개했다. ▲오영환 국회의원(미래정부준비단 단장), ▲전용기 국회의원(청년 선대위 공보단 단장), ▲이동학 최고위원(인사영입 단장), ▲장민수 청년대변인(운영단장)을 각각 임명해, 새롭게 분야별로 인선되는 4명의 인사들과 조화를 이룰 예정이다.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는 외부 영입인재에 대한 끊임없는 검증 논란에 대해 당 내에도 이미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다며, 당내에서 조명 받지 못했던 청년들을 발굴하여 정치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선대위는 추후 주 1~2회 청년 인선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순회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